사회 탐구 영역(국사)

◈정답

1. ②	2. ②	3. ④	4. ④	5. ②
6. ⑤	7. ①	8. ②	9. ③	10. ③
11. ①	12. ③	13. ⑤	14. ②	15. ③
16. ③	17. ④	18. ①	19. ⑤	20. ④

◈해설

1. ㈎는 서경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는 신라 계승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① 삼국 유사는 고조선 계승 의식을 표방한 역사서이다. ② 강동 6주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토대로 거란과 담판을 통해 확보하였다. ③ 남경은 풍수지리설에서 길지라는 주장이 있어 건설한 곳으로 신라 계승 의식과 상관이 없다. ④ 제왕운기는 고조선 계승 의식을 표방하였다. ⑤ 정지상은 서경 천도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므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통하여 신라 계승 의식 표방하였다.

2. 풍속을 교화하고 예속을 관장한다는 구절과 좌수(유향소 책임자), 별감 등의 용어로 보아 유향소에 관한 글이다. ① 경재소, ② 유향소, ③ 향교나 서원, ④ 향약, ⑤ 향도에 관한 설명이다.

3. ㈎는 6조직계제, ㈏는 흥선 대원군이 비변사를 축소 격하시키고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킨 조치에 관한 것이다. ㄱ. 6조직계제 실시와 종친이나 외척의 정치 참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태종은 종친이나 외척의 정치 참여를 배격하기 위해 노력한 왕이었다. ㄴ. 6조직계제는 태종이 실시하였는데 세종이 왕위를 계승한 후 왕권이 안정되자 폐지하였다.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였기 때문에 불안을 느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6조직계제를 실시하였다. ㄷ. 흥선 대원군이 시행한 개혁 조치로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민씨 세력은 소외되었다. ㄹ. 비변사가 일반 행정과 군사 업무를 모두 장악하여 왕권을 위협하자 흥선 대원군은 비변사를 축소·격하시키고 일반 행정은 의정부에, 군사 업무는 삼군부가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4.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이 변화하였다는 서술과 승탑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에 제작된 탑이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는 통일 신라 말기 진전사지 3층 석탑임을 알 수 있다. ① 삼국 시대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② 통일 신라의 불국사 3층 석탑, ③ 고려의 무량사 5층 석탑, ⑤ 고려의 월정사 8각 9층탑이다.

5. 고려 시대 수취에 대한 자료이다. ㄱ. 과전법은 생산량의 1/10을 수취하였다. ㄴ. 고려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다. ㄷ. 수전의 등급 간 수취량의 차이는 1섬 정도인데 비하여 한전에서는 2말 정도에 불과하다. ㄹ. 고려 시대 자료이다. 조선은 1등전에서 6등전까지 나누어 과세하였다.

6. 팔만대장경 완성지, 삼별초 항쟁 시작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강화도임을 알 수 있다. ① 완도, ② 제주도, ③ 거문도, ④ 울릉도, ⑤ 강화도이다.

7. ① 홍경래 군대는 평양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② 의주에서는 만상이 대중국 무역에 종사하였고 동래에서는 내상이 대일본 무역에 종사하였다. ③ 평양은 고구려 수도이고 개성은 고려 수도이다. ④ 왜군이 점령한 평양성을 놓고 조·명 연합군과 왜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동래에서는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과 왜군 사이에 전투가 전개되었다. ⑤ 개성에는 송상, 동래에는 내상이라는 사상이 활동하였다.

8. ㈎는 이황의 성학십도, ㈏는 이이의 성학집요이다. ① 이이, ② 이황, ③ 서경덕, ④ 이황에 관한 설명이다, ⑤ 인조반정을 계기로 서경덕과 조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북인이 몰락하고 서인과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자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이 조선 사상계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였다.

9. 국가 수입이 되는 각종 조세는 평민이 중심이 되어 부담하였다. 노비안검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평민으로 바꾸는 법이고 전민변정도감은 노비를 평민으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권문세족이 대토지를 집적하여 탈세하던 토지를 원주인에게 반환하여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양왕 때 전제 개혁은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던 국가의 수조권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10. ㈎는 고려의 수시력, ㈏는 조선 전기의 칠정산, ㈐는 조선 후기의 시헌력이다. ① 수시력은 이슬람의 천문학 성과를 수용하여 원에서 제작한 역법이다. ②, ③ 칠정산은 중국의 수시력과 이슬람의 회회력을 참고로 서울을 기준으로 제작한 역법서이다. ④, ⑤ 시헌력은 청나라에서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역법으로 화이론적 사고에 젖은 관료의 반대로 도입이 늦어지다가 김육의 설득과 노력으로 도입하였다.

11. 표를 분석하면 인구는 남녀 각각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3년간 출생한 남자와 여자를 파악하여 함께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 145명 중 노비의 수는 9명으로 생산 활동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촌주위답은 촌주에게 지급된 토지로서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라 지방 토착 세력이다. 고려 시대 호적은 인구만 기록하였고, 토지는 양안에 기록하였다.

12. ㈎는 훈련도감, ㈏는 속오군으로 모두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에 이어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위영이 추가로 설치되어 중앙군은 5군영 체제를 갖추었다. 17세기에 제주도에 표류해 온 벨테브레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 제조법을 가르쳐 주었다. 속오군은 상민(농민)을 주축으로 양반과 노비들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양반들이 빠져 나가면서 상민이나 노비들로 구성된 군대로 바뀌었다. ③ 조선 전기의 지방군인 영진군에 소속된 정군에 대한 설명이다. 속오군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13. A는 부여의 순장 풍습, B는 옥저의 골장제와 가족 공동 무덤, C는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고구려로부터 내려왔으나, 6세기 성왕 때 부여 계승을 표방하며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①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② C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③ A의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④ B의 옥저는 C의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14. 15세기 후반 이후 군역의 요역화로 농민들은 힘든 군역을 기피하였다.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① 조선 후기에 시행된 균역법에 의해 부과된 결작에 대한 설명이다. ③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 5군영에 대한 설명이다. ④ 조선 후기 5군영 성립 이후에 나타난 사실이다. ⑤ 임진왜란 이후 납속책과 공명첩 발급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15. '그'는 광해군이다. 광해군은 왜란 이후 양전과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왜란 때 소실된 양안과 호적을 복구하는 등 전후 복구 정책을 실시하였다. ① 연산군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을사사화가 일어난 명종 때에 대한 설명이다. ④ 숙종에 대한 설명이다. ⑤ 영조에 대한 설명이다.

16. 변발과 호복, 매 사냥 등을 통해서 원 간섭기임을 알 수 있다. 원 간섭기 때 공녀 징발은 고려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으며, 13세기 중엽까지 번창했던 상감청자도 원 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해 갔다. 망이와 망소이의 봉기는 12세기 후반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났으며, 형벌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대명률의 적용을 받은 것은 조선 시대이다.

17. ㈎는 이사금, ㈏는 마립간이다.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물왕 때 왕의 칭호가 연장자를 뜻하는 이사금에서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뀐 후, 6세기 초 지증왕 때부터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고쳤다. 마립간 칭호를 사용하던 5세기 전반 눌지왕 때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433). ① 마립간에 대한 설명이다. ② 마립간이 왕호였던 5세기 말 소지왕 때의 사실이다. ③ 이사금이 왕호였던 시기의 사실이다. ⑤ 왕의 칭호가 왕으로 바뀐 이후인 6세기 법흥왕, 진흥왕 때의 사실이다.

18. 역대 국경선 변화에 대한 문제이다. A는 조선 초 세종 때에 여진을 정벌하고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확정된 국경선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다. B는 6세기 중반 진흥왕이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확장된 국경선이다. C는 고려 시대 거란 침입 때 강동 6주를 확보하고 천리장성을 쌓아 이루어진 11세기의 국경선이다. D는 고려 초 태조가 북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확보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국경선이다.

19. ㈎ '자질은 총명하나 교수할 선생이 없어 경서 한 권도 배우지 못하고'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면 고려 시대 경학 박사의 파견과 관련된 자료임을 파악할 수 있다. ㈏ '성균관', '이색'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고려 후기 성리학 교육의 강화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임금이 천하를 교화하는 데는 학교가 우선이다', '공자의 도를 닦으며 국가의 제도를 설정하고', '현명한 선비' 등의 구절로 미루어 보면 고려 시대 국자감의 설치와 관련된 자료

임을 알 수 있다. ㈑ '9개의 재(齋)로 나누어 교수하였다'는 구절로 미루어 보면 고려 시대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의 융성과 관련된 자료임을 파악할 수 있다.

20. 제시된 주장은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사회 불안의 심화로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진 미륵 신앙과 예언 사상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 불안 속에서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와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나 무격 신앙, 미륵 신앙 등이 널리 유행하였다. ① 고려 초기의 사실이다. ② 신라 말기의 사실이다. ③ 고려 시대의 사실이다. ⑤ 무신 집권기의 사실이다.